

KOBETA NEWS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12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 회의에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재석 의원 261명 중 찬성 161명, 반대 94명, 기권 6으로 가결해 통과시켰다.

2023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지 1년 5개월 만에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시 수신료를 통합징수할 수 있게 됐다. 언론 현업단체는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를 위한 필수적이고도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SBS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넷플릭스와 SBS는 서울 목동 SBS 방송센터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SBS는 콘텐츠의 글로벌 확장을 도모하고, 넷플릭스는 구독의 가치 실현과 회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파트너십은 ▲ SBS 신작 및 기존 드라마, 예능, 교양 프로그램을 국내 넷플릭스 회원들에게 제공 ▲ SBS 신작 드라마 중 일부를 전 세계에 동시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G전자 'LG 라디오 플러스' 개시**

LG전자는 스마트TV로 라디오와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는 오디오 콘텐츠 서비스 'LG 라디오 플러스'를 스마트TV 플랫폼 '웹OS'에 담았다고 밝혔다. LG전자는 글로벌 오디오 콘텐츠 제공 업체 '라디오 라인'과 손잡고 최근 한국과 미국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내에선 CBS 표준FM, SBS 파워FM, TBS FM 등 실시간 라디오와 음악 방송 등 440여 개의 채널이 가동된다. 미국에서는 공영라디오 NPR과 뉴스 전문 CNN 라디오, 뉴욕타임스의 시사 팟캐스트 '더 데일리' 등 1만 4,500여 개 채널이 서비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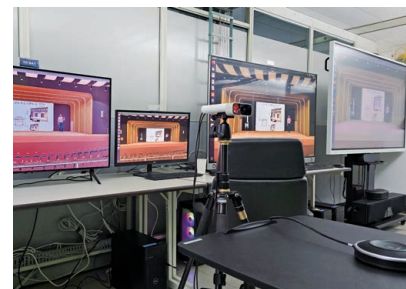
KBS 미디어연구소 '2024 AX DAY' 개최

KBS는 12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미디어 제작 기술의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전환(AX) 프로젝트의 성과를 발표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2024 AX(AI Transformation) DAY'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KBS가 개발해 실제 미디어 제작에 활용 중인 '생성형 AI 뉴스 그래픽'과 'AI 스포츠 중계 화면', 'AI 자막 동기화' 등의 다양한 AI 기술을 선보였다.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들이 개발한 'K-POP 안무 점수 측정기', 'AI 작곡', 'AI 웹툰 채색' 같은 창의적인 AI 솔루션도 전시됐다. 패널 토크에서는 AI 기술이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전망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ETRI 6G 초실감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핵심기술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초실감, 고정밀 서비스를 위해 요구되는 핵심 솔루션을 개발해 냈다. 연구진은 네트워크 종단 간 성능 맞춤형 단말 네트워크 스택 기술을 개발해 지연 없는 원격회의 시연으로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본 기술이 응용서비스와 네트워크가 상호 협력해 서비스 전송 품질을 최적화하는 새로운 전송계층 구조의 6G 단말 네트워크 핵심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TRI는 본 기술이 상용화되면, 원격회의는 물론 원격 오케스트라 협연, 원격 수술, 원격 로봇 및 스마트팩토리 제어, 홀로그램, 실시간 VR 등의 체험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OBS 방송기술인협회 송년의 밤 개최

OBS 방송기술인협회는 12월 17일 부천 OBS 본사 인근 중식당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OBS 방송기술인협회 소속뿐만 아니라 경영인 프라구 소속 동료들도 참여했고, 예년보다 더 많은 협회원의 참여로 풍성한 송년회가 되었다. 산타 복장으로 변장한 사무국장의 경품 진행 코너는 이번 송년회의 하이라이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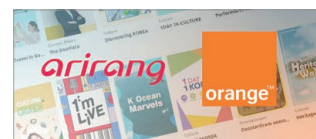
EBS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 개최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4년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미래를 그리다, 교육을 새롭게 하다.'라는 주제로 올해 처음 개최되었으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관', '미래교실관', '정책홍보관', '사례나눔관'을 통해 다양한 교육혁신 정책과 우수사례를 접해볼 수 있었다. 특히 디지털교과서관에서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사용될 76종의 영어·수학·정보 교과 AI 디지털 교과서를 한자리에 전시하였다.



아리랑국제방송 프랑스 유료방송 1위 플랫폼 'Orange' 진출

아리랑국제방송이 프랑스 유료방송 플랫폼 1위 사업자인(점유율 37%/IPTV) 오렌지(Orange)를 통해 방송을 시작한다. 아리랑국제방송은 Orange와의 채널 공급 계약 체결 후 기술 검토와 시험 방송을 진행했으며, Orange에 가입된 약 700만 가구의 프랑스 시청자들이 아리랑국제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프랑스 IPTV 플랫폼 FreeBox(점유율 15%/329만 가구)와 DTH 플랫폼 Canal+(점유율 14%/295만 가구)를 통해 방송해온 아리랑국제방송은 이번 Orange 플랫폼 진출로 전체 유료방송 플랫폼 중 66%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프랑스 시청자들에게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윤석열 탄핵 촉구 범 언론인 결의대회

"윤석열 탄핵하고, 민주주의 지켜내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는 탄핵 표결을 앞둔 12월 1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범 언론인 결의대회’를 위해 현업 언론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현업 언론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여의도 국회 앞으로 모였고, 이에 앞서 언론 현업 14개 단체가 주도하여 ‘윤석열 탄핵 촉구 언론계 시국선언’ 연명 신청에 297개 언론사 및 언론단체에 속한 4,164명의 현업 언론인이 참여했다.

‘윤석열 탄핵 촉구 범 언론인 결의대회’는 이러한 언론인의 소망을 확인하고, 시민과 함께하고자 개최되었다. 뜻을 함께한 언론 현업 14개 단체는 다음과 같다.

바른지역언론연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조사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의 범 언론인 시국선언 추진 경과보고로 시작된 이날 결의대회에선 모두가 한목소리로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의조차 할 수 없는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의 유포자로 ‘계엄사의 통제’를 받아야 할 ‘모든 언론과 출판’을 적시했다”면서 “50년 전 군부독재에서나 가능했던 어처구니없는 포고령으로, 국회와 시민에게 총구를 겨눈 계엄군의 난입에 대한민국 모든 언론인은 군홧발에 짓이겨졌을 군사독재 시절 언론 검열과 통제를 떠올리며 분노와 공포의 시간을 보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현업 및 전 언론인들은 “우리는 1960년 4·19 혁명부터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온 국민이 역사로 만들어 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붕괴를 목도하며 생명과도 같은 언론 자유의 가치를 되새긴다”라며 “험난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지켜 온 언론인의 책무를 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붕괴와 도약의 갈림길에서 우리 언론인은 어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의 역할과 주권자 국민이 요구하는 보도의 정확성에 만전을 기할 것”과 “이 위기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문제이며 무엇이 내란을 지속시킬 음모인지 명확히 구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기술인을 대표하여 시국에 대해 발언하는 김승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이날 자리에 모인 현업 언론인들은 이후 노래 'APT.'를 변경한 탄핵 관련 노래를 함께 불렀고, 주요 한국기자협회와 한국PD연합회 등 방송직능단체장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승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은 발언에서 “오늘 저는 대한민국 방송기술인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언론 통제와 민주주의 훼손은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윤석열 탄핵 투쟁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지난 촛불혁명이 우리 역사를 바꿨듯, 이제는 한 단계 더 진화한 국민적 참여와 연대로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론 종사자로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 호소하며, “이 투쟁은 우리의 의지와 연대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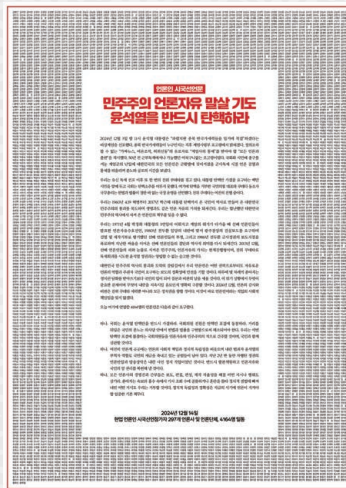
현업 언론인들은 발언이 끝난 뒤 시국선언문 낭독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결의에 찬 투쟁을 다짐했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결의대회 후에는 본 집회 장소로 행진하며, 국회 앞 마련된 자리에서 시민들과 함께했다. 이러한 국민의 염원이 한데 모인 결과로, 이날 4시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가결되었다.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지난 2016년 박근혜 前 대통령 이후 8년 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 박근혜 前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 대통령이 됐다. 



왼쪽부터 김세훈 SBS 방송기술인협회원, 장진영 SBS 방송기술인협회장, 최영훈 YTN 방송기술인협회장



배효식 OBS 방송기술인협회장(왼쪽), 박은종 OBS 방송기술인협회원(오른쪽)



12월 13일과 14일 광고 형태로 경남도민일보, 옥천신문, 미디어오늘, 한겨레, 경향신문, 기자회견보 등에 게재된 언론인 시국선언문